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수 360명 증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투표연령 만 18세 이하 등 제시 “의원정수 확대 공감대 형성” 등 일부 위원 부정적 의견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9일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고 투표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안을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3식당 별실 1호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또 “OECD 35개 국가 중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현재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들은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증원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대선거구로 개

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지역 이기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의정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현조 자문위원은 “의원정수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도 360명으로 못 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최금숙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360명보다는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고 의견을 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각 당은 자문위원 의견서를 참고해 입장을 정리하고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 계획대로 2월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대로 4월까지 선거구도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 뻐를 깎는 노력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보탬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시스



“자치분권으로 지역 혁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총원지방법정위원회 발대식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3% “흉기 위협 경험했다”

손찌검 · 구타 당한 경험 63.2% · 폭언 · 협박은 무려 95% 김광수 의원 “강박상성병원 사건 ‘예견된 사고’ 목소리 높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3%가 흉기 등 위험물 위협을 경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자료(전문 및 전공의 604명 참여)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전공의)의 33%(119명)는 흉기 등 위험물 위협을 경험했으며,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은 63.2%(383명), 폭언이나 협박은 무려 95%(5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협을 경험한 장소는 질문에는 외래가 68.4%, 보호병동 입원이 23.5%, 응급실이 17.6%, 개방병동 입원이 5.9% 순으로 답했으며, 가해자의 진단명은 성격장애 28.8%, 조울증 27.7%, 조현병 27.2%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보호병동 입원이 67% 외래가 30.1%, 응급실 20.2%, 개방병동 입원이 4.5% 순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해자의 진단명은 조현병 39.9%, 조울증 31.1%, 성격장애 14.2%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폭언이나 협박이 일어난 장소로는 외래 80.9%, 보호병동 입원 45.4%, 응급실 22.6%, 개방병동 4.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진단명은 성격장애 32.7%, 조울증 24.2%, 조현병 21.5% 순이고 설명했다.

김광수 의원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정

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대다수가 폭언이나 폭행, 심지어 흉기 등의 위협을 경험했다”며 “정신과 의료진에게 폭언은 일상이고, 폭행, 심지어 흉기로 위협을 당해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강박상성병원 사건을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의료계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복지부의 무관심속에 방치되다가 강박상성병원 사건이 가장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문 대통령, 靑 비서관 인사 6명 임명

정무 - 복기왕 · 국정홍보 - 여현호 · 제2부속 - 신지연 춘추관장 - 유송화 · 해외언론 - 김애경 · 문화 - 양현미 등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비서관에 복기왕 전 아산시장을,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를 각각 임명했다.

또 제2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 춘추관장에 유송화 전 2부속비서관, 해외언론비서관 김애경 전 삼일회계법인 변호사, 문화비서관 양현미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을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내년 5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비서관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인선 방향이 결정됐다. 송인배 전 정부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이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전 비서관 후임에는 복기왕 전 아산시장, 권 관장 후임으로 유송화 전 2부속비서관, 후임 2부속비서관 자리에는 신지연 전 해외언론비서관, 후임 해외언론비서관 자리에는 김애경 전 변호사가 연쇄 이동하며 빈자리가 채워졌다.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자리에는 양현미 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또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던 국정홍보비서관에도 여현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임명됐다. 남은 공석 비서관 자리에는 의견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이다.

뉴시스

노영민 靑 비서실장, 현안회의로 공식 일정 시작

직원들에 격려 이메일 발송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첫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 40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오후에는 직원들에게 당부와 격려메시지를 담은 서신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소통행보를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 실장의 공식 업무 첫날 일정을 세세히 소개했다.

김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노 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1시간 가량 현안점검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자산 압류 문제, 연간 고용동향 발표, 심석희 선수 성폭행 문제 등 오전에 일어난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정부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은 첫 마디로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는 데 걱정이 많다. 걱정 때문에 어제 잠을 설쳤다. 3시간 밖에 못 잤다. 비서실장 내정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도 3~4시간 밖에 자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많이 도와 달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대변인이 (뉴스) 모니터링을 (현안점검회의에서) 보고하는데, 제가 모니터링 (발표) 할 시간이 부

족해 막판에는 건너힐 정도로 논의가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대통령 티타임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모든 비서관실을 일일이 방문해 전 직원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 전 직원은 400여명이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 측 관계자가 “오늘 만보 행보를 했다”며 “여민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통해 걸어 다니느라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전 직원에게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담은 이메일 서신을 발송했다.

뉴시스

노회찬 재단 설립 완료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노회찬재단)이 9일 설립됐다. 지난해 7월23일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여만이다.

노회찬재단 설립실행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2월28일 국회사무처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았고 지난 4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며 “오늘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재단 설립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노회찬재단의 첫 이사회는 14일에 개최된다.

뉴시스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